허준석

Heo Junseok

선을 넘는 디자이너 허준석입니다.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디자인은 어떤 특별함을 찿아준다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특별함을 디자이너가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디자인을 하는 이유입니다. 저는 이러한 무의식과 경계를 계속해서 허물고 저만의 디자인을 통해 특별함을 부여하고자 합니다.

I'm Heo Junseok, a designer who crosses the line. I think that design, in people's unconsciousness, seeks a certain speciality. The reason why I design is that designers can give this speciality. I want to continue breaking down these unconsciousness and boundaries and give speciality through my own design.

[1224jun@naver.com](mailto:1224jun@naver.com)

@heoooo\_s